



빛 좋은 개살구 - 발전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법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 복지 현실

「현대시민생활과 법」과 「한국사회의 현실과 쟁점」강의페어링
국어국문학과, 이주연, 201621538

주제선정이유

과거의 대한민국의 장애인들은 능력이 있음에도 제도가 뒷받침 되지 않아서 교육받을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집 안에서만 생활해야만 했다. 하지만 1981년 6월 「장애인 복지법」이 제정되며 위에 나온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사회적 발판이 마련되었다. 현재 많은 장애인들이 이러한 사회적 제도를 바탕으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 현실이 여전히 취약한 현실 또한 여전히 존재한다. 나는 많은 문제들 중에 「장애인 이동권」과 「장애인 특수교육법」이 보장된 법 내용과 법의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짚어보고자 한다.

법적 제도로는 훌륭한 장애인 복지법

1.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 7조(대상시설)에선 대상 시설의 종류를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상 7년 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 특수교육법

장애인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에는 유치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4인당 1학급을 설치한다.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6인당 1학급을 설치하고,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7인당 1학급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르면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장애인 복지 1

1. 장애인 이동권 보호 현실

1-1 아주대학교 도서관

아주대학교 도서관에 있는 엘리베이터의 경우 장애인 마크가 붙어있기는 하지만 설치 할 당시 도서 운반용으로 설치 했으므로 휠체어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작다. 다른 엘리베이터는 없다. 아주대학교의 경우 매년 10명의 장애 학생이 입학한다. 학교는 학생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 이동권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1-2.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전학을 요구하는 학교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게 다른 학교로 가라는 것은 현실과 맞설 때 사용할 무기를 뺏는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장애인이 되었든 그 사람은 장애인이 된 순간부터 자기 자신과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한다. 장애인들에게 학업이란 생존과 같은 것이다. 낮은 취업률로 인해 비장애인들도 취업이 어려운 이 시대에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갈 수 있는 분야가 비장애인보다 많지 않다. 이런 현실 속에 장애인들의 유일한 무기는 학업이다. 또한 학교 스스로 존재하는 본질적 이유를 훼손하는 것이다. 학교란 세계화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학생들에게 성숙한 인격을 함양시키고, 진취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는 곳이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교가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이 없다는 이유를 드는 것은 학교란 장소도 결국 이기적인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장애인 복지 2

2. 장애인 특수교육의 현실

2-1. 부족한 특수학교

2016년 기준으로 전국 장애학생의 수는 8만 8000명이다. 하지만 특수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인원은 전체 인원의 30% 정도이다. 학교의 수가 전국 167개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집값 하락과 장애 학생들이 폭력적이라는 오해로 주민들이 공사를 반대하여 신설을 계획중인 특수학교 21개 중에 4개 밖에 공사 시작을 못한 것은 대한민국 장애인 특수교육의 현실을 보여준다.

2-2. 부족한 특수교사

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임시방편으로 교육청은 장애학생의 부모를 설득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으로 배정하고 있다. 배정이 되었다 해도 끝난것이 아니라 교사 1인당 맡아야 하는 학생들의 수가 많아 부담이 커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교사의 수를 늘려야 하지만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학생이 많아도 교육청에서는 법에서 정해진 정원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

손을 잡아주기를...

장애인 복지의 현실을 주제로 강의페어링을 준비하면서 내가 알게 된 현실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였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은 그 현실에 대해 화를 냈다. 그러나 나는 막상 그들에게 장애인과 관련된 일이 생기면 돌아서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부디 그들이 계속 손을 잡아주기를 바란다.